

추석 풍성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마련

전주시, 14일~18일까지 한옥마을 등 13개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행사·전통놀이 체험 운영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추석 당일에는 경기전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전주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주한옥마을 및 13개 문화시설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뜻깊은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전주를 찾는 귀성객들에게 전통문화도시 전주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전통문화공연과 축제와 문화장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우선, 전주시 대표 전통문화공연인 전주마당창극 '아나옛다, 배갈라라' 공연이 오는 16일과 17일 전주전통문화관 혼례마당에서 펼쳐지고, 전주한옥마을 야간공연 '유유자적'은 오는 15일과 16일 소리문화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경기전 홍보와 시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추석당일에는 경기전을 무료로 개방하고, 가마체험, 투호놀이, 다달방아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과 소리문화관, 한옥생활체험관, 전주공예품전시관 등에서는 제기차기와 고무신 날기, 천연염색, 투호던지기, 굴렁쇠 등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



제식 훈련 익산시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난 8일과 9일 나라사랑캠프를 운영했다. 사진은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식 훈련을 받는 모습이다. <사진=육군부사관학교 제공>

관 가족대항 율놀이와 풍물, 신명길놀이 등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또, 전통술박물관은 전통가양주 품평회와 전통술 시음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명희문학관에서는 '혼불'로 읽는 한가위, 최명희 취재수첩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한가위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부채문화관은 가족과 함께하는 민속 게임과 부채체험 등의 체험프로그램, 기념품 합인행사가 진행되며, 올해는 무형문화재 박인권 개인전도 열릴 예정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도 추석당일을 제외한 연휴기간 무료로 개방되며, '전통문화 큰나무 키움교실운영'과 함께 '달맞이그리다' 기획전시가 열릴 예정

이다.

이밖에 전주역사박물관은 한복을 입고 방문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즉석 사진을 선물하고 추석특선영화 상영과 송편나누기,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한지산업지원센터는 다양한 한가위 한지체험을 운영한다.

/김영재 기자

세계적 여행잡지가 극찬한 '전주', 부산서도 통했다

<론리 플래닛>

시, 부산국제관광전 참가 홍보관 운영... 일본·태국관광객 유치 위한 인바운드 등 마케팅 전개

세계적 여행잡지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 여행지 전주가 부산에서도 통했다.

전주시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9회 부산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전주관광홍보관을 운영하고, 일본과 태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바운드 트래블마트 상담회에 참가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마케팅을 전개했다.

부산광역시와 주최하고 (주)코트피와 부산광역관광협회가 주관한 제19회 부산국제관광전은 국내외의 45개국 250개 기관과 단체, 430개 홍보부스 참여한 국제규모의 관광전으로, 박람회 기간 동안 국내외 관람객 1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인기 높은 여행박람회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또 가고 싶은 전주'라는 슬로건으로 전주를 홍보해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수상하는 등 부산국제관광전과는 인연이 깊다.

올해도 가을같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 전주시는 올해 '더 늦기 전에 지금, 전주!'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한민국 도시관광문화를 선도하는 전주다운 관광홍보와 안내, 홍보이벤트를 전개해 여행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 관광안내사와 도시관광해설사를 통해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 여행지 전주의 역사문화와 생활문화, 생태문화 등을 소개하고 '너도나도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체험 등의 이벤트와 퀴즈쇼 등을 전개해 인기를 모았다.

또한 10월 전주비빔밥축제와 여행주간 등 관광특수를 맞춰 부산과 경상권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산지역 여행사 대표들과 만나 코레일 교육전용 열차 E-Train과 전용버스를 이용한 지역전통문화관광자원화사업 '유네스코 전주여행' 상품을 만들기 위해 협의하는 등 가을 관광객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유치 여행상품개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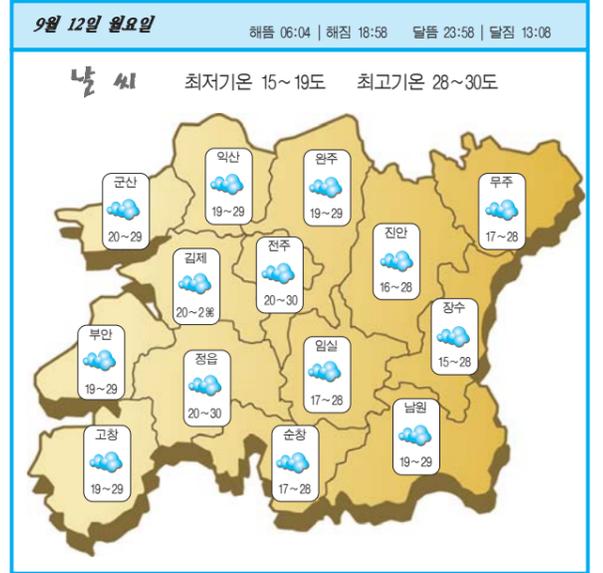
전주시는 9일 전주관광설명회와 인바운드 트래블마트 상담회를 잇따라 열고 일본 도쿄 5개 여행사와 나고야 지역 3개 대형여행사 상품기획자와 만

나 U-20 FIFA월드컵과 세계태권도대회 등을 연계한 전주 여행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태국지역 4개 여행사 대표와도 전주한옥마을과 드라마, 영화촬영지를 연결한 전주여행상품을 논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세일즈 톨을 전개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특히 일본과 태국지역 인바운드여행사들의 여행상품개발에 관한 상담과 제안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내년 U-20 FIFA월드컵과 세계태권도대회 기간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 학생 대상 교육 투자 국·공립 '1위'

전북대학교가 전국 국립대 가운데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16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전북대는 2015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인당 1,633만 원으로 전국 국·공립대중 가장 높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00만 원을 넘은 것은 국·공립대 가운데 전북대가 유일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각종 보수, 관리운영비, 도서관비, 기계구입비 등 총 교육비를 학생 수로 나눈 금액으로, 대학이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실제로 전북대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과 1 스마트 강의실 구축 운동'을 통해 강

의실 첨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학생 스터디룸을 크게 확충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인성을 갖춘 모험생 양성을 기치로 내걸고 생활관을 단순 숙식의 공간에서 탈피해 인성과 배려심 등을 키울 수 있는 '레지덴셜 칼리지'를 도입,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학생 누구나 졸업때까지 최소한 학기 이상 외국이나 타 지역에 나가 언어와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프캠퍼스' 프로그램도 도입해 학생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취업동아리와 창업동아리 지원과 각종 고시반 지원 등 학생 복지 수준을 크게 높여왔다.

/고민형 기자

도교육청, 내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신청서 접수

전북도교육청은 20일까지 20개 분야에서 내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내·외에서 사회단체 교육사업 참여 증대로 행복한 전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인성교육 지원 등 20개 분야에 약 1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단체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다.

20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제안을 통한 인터넷 접수와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도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12월중 최종 확정한다.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사후성과평가를 실시해 다음해 보조사업 심사에 반영하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위원이 3/4 이상 참여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 보조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Hello, Modern GUNSAN CITY

근대, 추억을 만나다

군산시감여행 축제

2016. 9.30 Fri ▶ 10.2 Sun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및 월명동 일원

군산시 시간여행문의 관광진흥과 T. 063) 454-3343 festival.gunsan.go.kr

*시간여행 드레스코드(교복·양장 등에 맞는 복장으로 행사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